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 앞으로는 세계 인류가 모두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이렇게 사모하도록 하지 아니하려는가. 나는 우리의 힘으로, 특히 교육의 힘으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가 다 이 마음을 가질진대 아니 이루어지고 어찌하랴!”

〈나의 소원〉중에서

❓ 여러분이 원하는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인가요?

.....

.....

.....

❓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

.....

💡 * 나의 소원 : 1947년 백범일지를 발간할 때 추가로 쓴 글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정치·사회·민족에 대한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이름

기념관에 온 날

..... 학교 학년 반

백범 김구 선생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 1876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남
- 1887 양반이 되기로 결심하여 공부 시작
- 1892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
- 1894 황해도 동학농민군의 선봉장이 됨
- 1896 치하포 의거
- 1903 황해도에서 교육사업 시작
- 1907 국권회복을 위한 신민회에 가입하여 황해도 총감으로 활동
- 1911 안락사건으로 수감생활
- 1915 출옥 후 농민계몽운동 전개
- 1919 3·1 운동 후 중국 상하이(上海)로 망명
임시정부의 경무국장, 내무총장, 노동부총판, 국무령 역임
- 1931 한인애국단 조직
- 1932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로 위기의 독립운동을 되살림
- 1940 한국광복군 조직, 본격적인 군사활동 전개
- 1941 일본에 선전포고
- 1945 미군과 국내진입작전 준비
환국, 신탁통치 반대운동 주도
- 1948 남북한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 참여
- 1949 6월 26일 서거



백범김구기념관 소개

백범김구기념관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높은 문화를 가진 자주·민주·통일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생을 분투하신 거리의 큰 스승 백범 김구 선생(1876~1949)의 삶과 사상을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02년 10월 22일 개관하였습니다.

백범김구기념관은 한국 근현대사 전문 역사박물관으로 한국의 근현대사와 함께 한 백범 선생의 삶과 사상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리의 문화적 삶의 공간입니다.

관람안내 & 찾아오는길

관람시간 3월 - 10월 오전 10시 - 오후 6시 (입장마감: 오후 5시)

11월 - 2월 오전 10시 - 오후 5시 (입장마감: 오후 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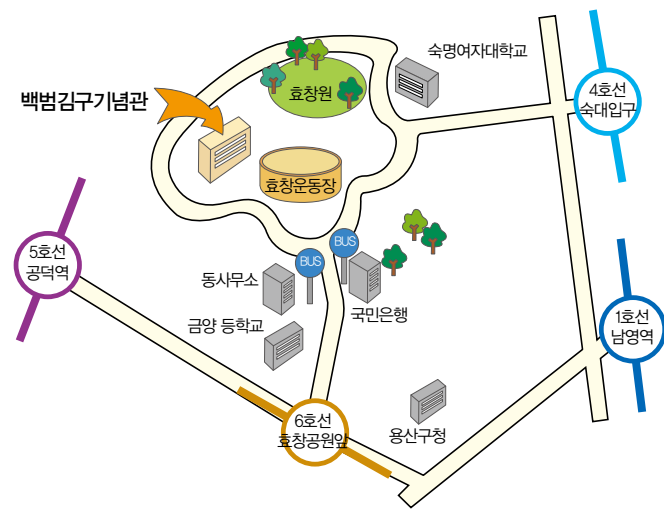
정기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관람료 무료

관람문의 02-799-3450

교육프로그램 문의 02-799-3433

교통안내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 1번출구 효창운동장방향 도보 10분 거리



백범김구 기념관
KIM KOO MUSEUM & LIBRARY

발행 백범김구기념관 기획 박희명 디자인 art publication design GOGH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55 Tel. 02-799-3433 Fax. 02-718-1311 www.kimkoomuseum.org
본 책자에 실린 글과 도판은 백범김구기념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활동지



백범김구기념관

이 활동지는 백범김구기념관 전시를 보다 쉽게 관람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 이 전시실에서는 백범 김구선생의 걸어오신 길을 함께 걸으며, 아름다운 조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희망을 찾자 합니다.

! 스스로 생각하기

? 전시실에서 새롭게 알아가기

💡 관람에 도움되기


🎥 영상물 감상하기

🔍 설명패널 참고하기


1


황해도 시골의 어린시절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백범 김구 선생은 집안이 가난했지만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진 어린이였다.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을 보고 과거 공부를 그만 둔 백범 김구 선생은 "마음 좋은 사람(好心人)"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애니메이션 '어린시절 일화'를 감상해 봅시다.

18살의 백범 김구 선생은 동학(東學)에 입도하여, 활발한 포교(布教)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동학에 참여시키고, 한 지역의 책임자가 되어 '아기 접주*'라는 별명을 얻었다.

 애니메이션 '동학 · 의병 활동'을 감상해 봅시다.


 왜 백범 김구 선생은 동학활동에 참여하였을까요?




.....
.....
.....

동학운동의 실패로 어려움에 처한 백범 김구 선생은 청계동 안태훈 진사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이때 고능선 선생을 만나게 되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유학자 고능선에게 실천 철학, 과단성과 함께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과 이를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웠다. 고능선의 가르침은 백범 김구 선생의 민족 의식과 사상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가지를 잡고 나무를 오르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나(得樹攀枝無足奇) 벼랑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는 것이 가히 장부르다(懸崖撒手丈夫)"

 고능선 선생의 가르침인 실천철학은 일을 성취할 때 어떠한 단계로 진행 하라는 것일까요?





 * 접주(接主) : 동학(東學)에서 교구 또는 포교소(佈教所), 즉 접(接)의 책임자.

2

방랑과 모색, 식민의 시련


1896년 3월 황해도 안악군 치하포에 도착한 백범 김구 선생은 조선인으로 변장한 일본 군 중위 스키다를 발견하고 처단하였다. 이 사건(치하포 의거)으로 감옥에 투옥된 백범 김구 선생은 여러 책을 읽으면서 우리 백성들도 배워야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고 깨달았다. 이러한 인식은 선생이 교육계몽운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매직비전 '치하포 의거'를 감상해 봅시다.

 백범 김구 선생은 치하포 의거 후 '자주성(自主性)'을 인생의 대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자주(自主)'란 무엇일까요?

.....
.....
.....

백범 김구 선생은 구국운동기 대표적인 항일 민족 단체인 신민회에 참여하여 군자금 모금 임무를 띠고 활동하던 중, 1911년에 체포되어 4년 8개월간의 옥고를 치렀다. 백범 김구 선생은 옥중에서 뜰을 쓸고 창을 닦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거든, 그 집의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해 보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옥중 생활을 하는 동안에 독립에 대한 의지를 더욱 다지고자 스스로 호(號)를 '백범'으로 바꾸었다.

 매직비전 '옥중일화'를 본 후 김구 선생의 호인 백범(白凡)의 뜻을 적어봅시다.

白丁 + 凡夫


.....
.....
.....




3

문지기의 길, 민족운동의 전선으로!


백범 김구 선생은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움직임이 있자, 상하이로 향하였다. 겸손한 마음으로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지만 국내의 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경무국장으로 임명되었고, 그 후 내무총장을 거쳐서 국무령에 선출되었다.

 보물 제1245호 백범일지(白凡逸志)*를 살펴봅시다.


 백범일지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백범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 세력의 단결을 위해 노력하며 미국의 동포들에게 지원과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쓰기 사업을 펼쳐나갔다. 또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931년 한인애국단을 창설하였다.

 매직비전 '이봉창 · 윤봉길 의거'를 감상해 봅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重慶)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한국광복군은 중국대륙 등지에서 대일항전을 전개하며 미국의 전략첩보기구인 OSS와 연계하여, 국내진입작전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에 대한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기록영상물 '한국광복군 활동'을 감상해 봅시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중국의 상하이에서 수립되었고, 상하이 → 항저우 → 전장 → 창사 → 광둥 → 류저우 → 치장 → 충칭으로 옮겨 다니며, 27년간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 일지(逸志) :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이야기의 기록.


4

조국에 돌아와서


1945년 일제의 항복으로 조국에 돌아온 백범 김구 선생은 조국이 38선으로 나뉘어진 현실을 보고, 신탁통치 반대와 즉각적인 자주 독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8년, 남한과 북한에 각각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그 후 백범 김구 선생은 1949년 1월 신년사에서 조국 통일의 염원을 재확인하며, 자주적 민족정신에 입각한 통일국가의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였으나,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 조국통일의 염원을 간직한 채 서거하였다.


 백범학원생 일동이 남긴 추모의 글을 살펴봅시다.

할아버지 이렇듯 변을 당하시와 갑자기 가슴시니 원통하기 더욱 끝이 없나이다. 할아버지 그러나 저희 어린 것들은 가슴속 깊이 깊이 맹세하옵니다. 그 성스러우신 뜻을 받들겠다고, 할아버지 님의 떠나신 그 혼령이나마 하늘에 길이 안식하소서 어리어나 저희 사백여 백범이 또 있사오니.

 백범 김구 선생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
.....

 백범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의 시계를 살펴봅시다.

 아래의 내용을 전시관에서 찾아보고 마지막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을 완성해 주세요.

"... 때마침 7시를 치는 종소리가 들렸다. 윤군은 자기 시계를 꺼내 내 시계와 교환하자고 하였다. '제 시계는 어제 선서식 후 선생님 말씀에 따라 6원을 주고 구입한 것인데, 선생님 시계는 불과 2원짜리입니다. 저는 이제 1시간 밖에 더 소용없습니다.' 나는 목메인 목소리로 마지막 작별의 말을 건네었다. '.....'..."
(백범일지) 중에서

